

프랑스국립도서관 소장 「직지」 원본 조사 연구

A Research on the Physical Condition of the Original *Jikji* (直指)
Held at the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남 권 희 (Nam, Kwon-Heui)*
김 성 수 (Kim, Sung-Soo)**
이 승 철 (Lee, Seung-Cheol)***
임 인 호 (Im, In-Ho)****

◁ 목 차 ▷

- | | |
|---------------------|----------------|
| 1. 서론 | 5. 「직지」의 조판 상태 |
| 2. 「직지」의 외형 및 내형 | 6. 결론 |
| 3. 「직지」의 활자 인쇄 상태 | <참고문헌> |
| 4. 「직지」의 전반적인 인쇄 상태 | |

< 초 록 >

이 연구는 위 공동연구자 4인이 <프랑스 국립도서관> 소장의 「직지」 원본을 실제로 열람·조사하고, 「직지」의 형태 사항 및 전반적인 인쇄 상태와 조판 상태 등을 조사·분석한 것이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지」를 인쇄한 대자(大字)와 소자(小字)들에서 금속활자인쇄의 가장 큰 특징인 반점(斑點)의 흔적 등 금속활자본의 특징들을 확인함으로써, 「직지」는 세계최고(世界最古)의 금속활자인쇄본임을 재확인하였다.

둘째, 「직지」 내형의 책 전체가 배접되어 있고, 책의 상단 및 서머(書腦部 상단 부분에 송진(松津)의 누습으로 인한 갈변현상(褐變現狀)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직지」가 인쇄된 바탕종이의 지질(紙質)은 얇은 닥종이에 세로발끈이 보이는 한지(韓紙)임을 확인하였다.

셋째, 「직지」 원본에서 인쇄된 글자의 희미한 부분은 묵서(墨書)로 보충 또는 교정한 사례가 많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직지」 활자의 대표자(代表字)의 자형(字型)을 선정(選定)할 때에는 극히 유의(留意)해야 함을 지적(指摘)하여 둔다.

넷째, 「직지」의 전반적인 인쇄 및 조판의 상태는, 현재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그 상태가

*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nakwhe@hanmail.net)

** 청주대학교 인문대학 문화정보학부 문헌정보학전공 교수(muyokss@hanmail.net)

*** 청주고인쇄박물관 학예연구사, 문헌정보학박사(jikji21c@hanmail.net)

**** 무형문화재 제101호(금속활자장) 전수교육조교(inho1220@naver.com)

접수일: 2006년 11월 9일 최초심사일: 2006년 11월 11일 심사완료일: 2006년 12월 18일

고르지 못하고 각 활자의 인쇄에서 먹의 진하고 옅은 차이가 많았으며, 인출 때 흔들려 이층으로 찍힌 부분이 나타나는 경우 등등의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77년 당시 금속활자인쇄의 초기 미숙한 상황들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직지」의 인쇄는 경이(驚異)롭다.

要語 : 직지, 금속활자인쇄, 형태서지학

<ABSTRACT>

This study reports the results from the actual inspection of *Jikji*(直指) held at the Bibliothèque Nationale in France. Four researchers examined the physical features and the general condition of printing and typesetting of *Jikji*.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from both large and small fonts used for printing *Jikji*, spots and stains which characterized the method of printing with metal movable types were observed. Therefore, *Jikji* was again confirmed as the oldest existing print with metal movable types.

Second, the inner part of the entire book of *Jikji* was glued and folded, and the top of the book and its spine became discolored with resin. Papers on which *Jikji* was printed were also confirmed as Korean Hanji with paper grains that ran lengthwise inside a thin mulberry paper.

Third, some letters unclearly printed in *Jikji* were corrected and supplemented with calligraphy. Therefore, it should be very careful to select the model shapes of characters from *Jikji*.

Fourth, it was also observed that the condition of its printing and typesetting was not even, the density and clearness of individual letters varied, and some letters were blurred during pressing. Despite all of these weaknesses, however, it is still amazing to be able to print *Jikji* with metal movable types in 1377, when the general condition of printing was in the primary stage.

Key words : *Jikji*, Metal movable type printing, Physical bibliography

1. 서론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 이하 「직지」로 약칭함)」 유일본(唯一本)은 현존하는 세계최초(世界最古)의 금속활자인 쇠도서로서 ‘콜랭 드 플랑시(Collin de Plancy; 1853-1922)’에 의하여 수집되어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¹⁾ 이러한 「직지」는 1972년 파리 <세계도서의 해> 때 세계에 널리 소개되었고, 1985년에 그 간행사찰(刊行寺刹)인 흥덕사(興德寺)가 청주(淸州)에서 발굴되면서 국내외에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2001년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고, 2005년에 <유네스코 직지상>이 제정되면서 명실상부하게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²⁾

그러나 위와 같은 「직지」 실물(實物)에 대한 국내 연구자에 의한 서지학적인 실제 조사 및 그 보고는 정작 그동안 미흡하였던 바,³⁾ 2005년에 <청주시>가 「금속활자 주조 및 인쇄기술사 복원 연구」의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청주대학교 학술연구소>가 이 연구를 수행하면서, 이 연구의 공동연구원 사이에서 세계에서 현존 금속활자의 시원(始原)인 「직지」 원본(原本)에 대한 실제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⁴⁾ 이에 <청주고인쇄박물관>은 2005년도 중반 경 <프랑스 국립도서관> 관장에게 「직지」 실제조사단 파견을 요청하였고, 2006년초에 성사되었다. 이에 따라 2006년 5월24일부터 27일(4박 6일)까지 위 공동연구자 4인이 <프랑스

1) 「직지」는, 1886년 <한불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된 후, 초대 주한대리공사로 부임하였던 ‘콜랭 드 플랑시’에 의하여 수집·구입되었음.

2) 금속활자는 대량인쇄에 입각한 ‘정보전달의 혁신’이라는 측면에서 지난 천년 동안의 가장 위대한 문화적 업적으로 인정된다.

3) <프랑스 국립도서관> 소장 「직지」에 대한 열람·조사는, 그동안 몇 차례 실시되었다는 전언(傳言)은 있으나, 정작 「직지」 실물(實物)을 열람·조사한 후 이와 직접 관련하여 그 구체적인 치수나 확대경 등에 의거한 개별 글자나 인쇄 상태 등의 자세한 관찰 기록 등을 문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다.

「직지」에 대한 문헌 소개는 1970-80년대에 손보기·천혜봉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바 있고, 천혜봉의 해설서(천혜봉, 「白雲和尚抄錄 佛祖直指心體要節 解說書」(청주·청주고인쇄박물관, 2000)가 있다.

4) 그러나 연구비 중에서 해외출장비가 제외되면서 연구용역에서의 공식적인 「직지」프랑스 현지조사는 무산되었다.

국립도서관>에서 정식 열람절차를 밟아, 이 도서관의 <동양문헌실>에 보존되어 있는 「직지」 원본에 관하여 직접조사를 수행하였다.⁵⁾

「직지」 원본의 열람·조사는 개인별 1년에 3회 이상 열람이 허락되지 않으며, 개관시간 중 열람신청자 1인에 국한하여 담당사서의 감독 아래 참고사서 데스크의 바로 앞자리에 위치하는 지정된 열람석에서만 그 열람이 가능한 열람원칙에 따라, 공동연구자 4인이 순차적으로 각각 조사하는 방식을 통하여, 각 연구자가 평균 5-7시간씩 「직지」를 열람·조사하고 기록(메모)하였다.⁶⁾

본고에서는 위 공동연구자 4인이 「직지」를 직접 열람하고 조사한 여러 상황들을 수합함과 동시에 상호 토론하고, 그 일치된 견해의 결과들을 축약하여 1) 「직지」의 외형 및 내형, 2) 「직지」 활자의 인쇄상태, 3) 「직지」의 전반적인 인쇄상태, 4) 「직지」의 조판 상태 등으로 크게 4구분하여 분석하고, 이들을 종합하여 결론을 유도하는 방법론을 취함으로써, 우선 제1차로 개략적이거나 「직지」 원본의 실제 조사결과를 분석·고구(考究)하고자 한다.⁷⁾

2. 「직지」의 외형 및 내형

2.1 「직지」 외형의 상황

1) 책의 크기: 세로 24.5 × 가로 17.0⁸⁾cm.⁹⁾

5) 출장조사에 소요된 경비는 위 4인 공동연구원들의 釀出에 의한 私備로 전액 충당되었음

6) 「직지」의 실제 조사에서, 「직지」 원본에 대한 촬영은 물론 금지되었을 뿐 아니라 열람실의 전경마저 그 촬영이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직지」의 형태상의 크기 등을 조사할 수 있는 줄자 및 상세한 인쇄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확대경 등의 사용은 허용되었으나 책의 지면 위에 직접 안착시켜 관찰할 수 있는 확대경은 허락되지 않았다. 기록도구는 연필만 허용되었다. 또한 인쇄된 종이의 뒷면 상태의 조사 등 자유롭게 조사할 수 있는 여건은 어느 정도 허용되었다.

7) 이에 관한 세부적인 아주 상세한 보고서는 차후 제목을 달리하는 상세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으로 있음.

8) 書首(頭) 부분: 16.9cm 書根부분: 17.1cm로 나타남 이는 後代에 再製冊 때 나타난 현상으

2) 책의 두께: 1.3cm.

「직지」의 보수(補修) 당시 종이의 각 장 속에 배접을 한 영향으로 인하여 책의 서뇌(書腦)부의 왼쪽부터 서구(書口) 부분까지 그 전체가 상당히 부풀려져 있는 상태임.

3) 제책(製冊)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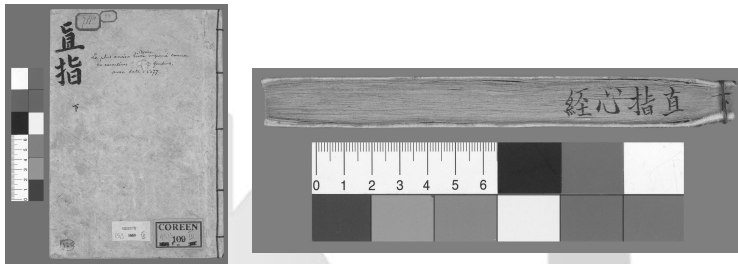
① 오침안정법(五針眼訂法): 침안(針眼) 위치: 가로; 서근(書根)의 오른쪽 끝에서 왼쪽으로 0.6cm 부분. 세로; 서근(書根)-제1침안 2.0cm, 제1침안-제2침안 4.6cm, 제2침안-제3침안 6.0cm, 제3침안-제4침안 5.5cm, 제4침안-제5침안 4.3cm, 제5침안-서두(書頭) 2.0cm

② 홍사(紅絲; 진홍색(眞紅色), 조선 전통의 끈은 아님).¹⁰⁾

4) 서근제(書根題): ‘下 直指心經’¹¹⁾

5) 표지의 안쪽 종이는 반짝거리는 금박 성분이 포함되어 있음.

(<그림 1> 참조)



<그림 1> 「직지」의 외형

로 보임.

- 9) 책의 표지는 후대(後代)인 19세기 이후 다시 제작된 것으로 보임. 제책제의 오른쪽에는 폴렌드 빨랑시가 잉크 및 펜으로 쓴 것으로 보이는 메모가 기록되어 있고, 책 표지의 하우단에는 메모된 스티커가 2장 붙어 있음
- 10) 紅絲의 재료는 가야금 또는 거문고의 굵은 현으로 사용되는 명주실에 붉은 칠을 한 것으로 보임.
- 11) 「직지」를 ‘直指心經’으로 표기한 것은 잘못표기(誤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아마도 한국 불교계의 대표적인 경전인 「般若心經」을 의식하여 「직지」 또한 後代에 이렇게 잘못 표기한 것으로 보임.

2.2 「직지」 내형의 상황

2.2.1 짝수 장: 제2장(張)

- 1) 상하 여백: ① 윗여백(書眉): 2.2cm. ② 아래여백(書脚): 1.5cm
- 2) 변란: ① 四周單邊(단변 두께; 0.1cm),
內變: 20.4(세로)×14.6(가로)cm. 外邊 20.7×14.7cm.
② 11行 19(18, 20)字.
③ 行間(간격): 1.25-1.3cm, 넓은 경우 1.35-1.4cm.
- 3) 판심: ① 판심 폭(가로 길이): 중봉(中縫)의 좌우 0.9-1.0cm.
제1장 판심 폭 0.9-1.0cm, 제2·3장은 0.9cm, 제4장 1.0cm 등으로 접은 상태가 차이남. 접을 때 아래위의 간격이 고르지 않은 경우 즉 제3장의 경우 위는 0.7, 아래는 0.9cm.
② 上下無魚尾, 無界線, 版心題, 下段 中盤 에 張次 表示.
③ 版心題: ‘直指下’
④ 판심부분 아래 광곽 부분이 연결된 것은 인쇄가 아닌 묵서(墨書).
⑤ 제34장부터 판심의 연결된 상란(上欄)은 묵서가 아니라 인쇄되어 있음.
(<그림 2>의 짝수 장 참조)

2.2.2 홀수 장(張)

- 1) 상하 여백: ① 윗여백(書眉; 세로길이): 2.4cm. ② 아래여백(書脚): 1.3cm.
- 2) 변란: ① 四周單邊(단변 두께; 0.1cm),
內變: 20.5(세로)×14.6(가로)cm. 外邊 20.7×14.75cm.
② 11行 19(18, 20)字.
③ 行間 間격: 1.25-1.3cm, 넓은 경우 1.35-1.4cm.
④ 제1면의 변란 5·6·7·8·9행의 하단, 및 제2면의 6·7·8·9·11행의 하단부 변란 깨어짐 상태.

- 3) 판심: ① 판심 폭(가로 길이): 좌우 0.9-1.0cm.
제1장 판심 폭 0.9-1.0cm, 제2·3장은 0.9cm, 제4장 1.0cm 등으로 접은 상태가 차이남. 접을 때 아래위의 간격이 고르지 않은 경우 즉 제3장의 경우 위는 0.7, 아래는 0.9cm.
- ② 上下無魚尾, 無界線, 版心題, 下段 中盤 에 張次 表示.
- ③ 版心題: '直指[지]의 우방 '匕(비수 비)'가 'ㄴ(돼지해밀 뒤)'로 표기되어 있음] 下'
- ④ 판심부분 아래가 연결된 것은 인쇄가 아닌 墨書.
(<그림 2>의 홀수 장 참조).

2.2.3 「직지」 내형의 전반적인 상황

- 1) 책 전체가 배접되어 있음. 배접지의 발폭 1.2-1.5cm.
- 2) 서구(書口)의 상단부터 책 전체의 1/4 가량 및 서뇌(書腦)부 상단 부분에 송진(松津; 松脂)의 누진현상 및 갈변현상(褐變現狀)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그림 2> 참조). 이러한 현상으로 미루어 보아, 「직지」 원본은 소나무로 조성된 목불(木佛) 속의 복장본(腹藏本) 상태로 보존되었다가 발굴되었을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
- 3) 지질(紙質)은 얇은 닥종이에 세로발끈이 보임, 그 폭은 2-2.5cm.
- 4) 배접후 철(綴)할 때 상하단이 절단됨.
- 5) 재제본(再製本)할 때 상하 2곳에 흰색의 지념(紙捻)으로 묶었으나, 좌우변란과 너무 가까이 철해져 있는 상태이므로 책장을 넘기기 어려운 상황을 보이고 있다.

體會師曰為般若體畢竟清淨無有一物可得
 是名無法可說其名說法
 ○佛體和尚示眾舉僧問趙州如何是不遷義州以
 手作流水執其僧有省又僧問法眼不取於相
 如如不動如何不取於相見不動去法眼云日出東
 方夜落西其僧亦有省也於此二和尚言句
 見得方知道旋風偃岳本來常靜江河競注元
 自不流此是如如不之義動
 ○羅山和尚曾偈石霜起滅不停時如何霜云直須
 寒灰枯木去一念萬年去全消絕點去山不契却
 住巖頭更始前問頭喝云誰起滅山於言下默
 報恩則和尚因法眼問曾見什麼人來曰見青峯
 和尚來眼曰有其麼言句曰某甲曾問如何是學
 人自己峯曰丙丁童子來求火眼曰丁座作麼生
 會曰丙丁童子來求火將自己求自己師云情
 知你不曾佛法若如此不到今日則踈闊便起至
 中路却云他是五百人善知識道我不是必有長
 處却回讖謔便問如何是學人自己師云丙丁童
 子來求火則於言下豁然大悟
 ○昔揚政會禪師見慈明和尚每到方丈誦益明云
 你自會去我不如汝揚政切心切心一日伺候于
 袂路兼值六兩揚政扭住慈明云天子日不與我說

打和尚去慈明勸聲曰你自會去你自會去我
 不如汝揚政言下豁然大悟
 ○龍潭和尚問天皇某甲自到來不蒙和尚指示心
 要皇曰自汝到來未嘗不指示汝心要曰何處
 是指示我心要曰汝擊茶來我為汝接汝行食
 來吾為汝受汝和南時吾便低首何處不指示
 汝心要龍潭佇思之間皇曰見則直下便見擬
 思即差潭當下大悟乃復問如何保任皇曰任
 性逍遙隨緣放曠但盡凡心別無聖解如洛浦云
 不生智解明更無餘事
 ○關禪師示眾云不生想念本來無體大用現前
 不說時節後臨遷化時問侍者云坐子若誰侍
 者曰僧伽又云立去者誰侍者曰僧會師乃周
 行七步垂手而終
 ○瀟山二日侍立百丈丈問誰師云靈祐丈云汝擔
 廬中有火不師撥云無文躬起深撥得小火舉
 以不之云此不是火師大悟
 ○南臺寺安和尚因僧問眾無依時如何師云
 眾果底響乃有頌曰南臺靜坐一爐香終日疑
 然萬慮忘不是息心除妄想都緣無事可思量一
 玄沙因鏡清問學人下入叢林先師指介入路師
 云還聞偃溪水聲麼清云聞師云從這裏入清於

<그림 2> 「직지」의 내형

3. 「직지」의 활자 인쇄 상태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서 우선 지적·확인해야 할 것으로, 「직지」 원본을 펼쳤을 때, 모든 장(張)의 거의 모든 활자(글자)들의 인쇄 상태에서 금속활자인쇄의 가장 큰 특징인 반점(斑點)의 흔적이 육안으로도 금방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¹²⁾

2) 일반적으로 활자체의 굵기가 고르지 못한 현상들을 직접 확인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활자인쇄의 기술이 발전하지 못한 초기의 상황에서 그 부자(夫字: 木活字 또는 밀랍활자) 도각(刀刻)의 미숙(未熟) 또는 금속활자 주조기술의 미성숙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3) 인쇄상태가 진하게 인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쇄의 희미한 부분 즉, 획이 빠지거나 분명하지 않은 곳은 목서로 보충한 곳이 아주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직지」에서 대표자나 자형(字形)을 선정할 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추후 별도의 리스트 제시 예정).

4) 식자가 잘못되어 오자(誤字)가 인쇄된 부분 중에서 그 일부를 칼 등으로 긁어내어 교정한 흔적이 있다.
예) 제3장의 1면 5행 제13자: ‘今日則.’ ⇒ ‘今日則.’;
‘目’의 아랫부분을 칼 등으로 긁어내어 ‘日’자로 교정한 사례 (오른쪽 그림 참조).



12) 斑點은 금속활자의 인쇄 때 유연묵(油煙墨)을 사용하였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이 반점은 금속활자 주조 당시 글자의 획에 이러한 반점의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5) 문장 중에 빠진 부분을 주서·묵서(朱書·墨書)로 교정한 부분이 있다.

예) ① 朱書로 필삽(筆插)한 경우: 제2장의 2면 8행 제11자: 動'자

② 墨書로 필삽한 경우: 제2장의 2면 11행 하단부: '言下大悟' 중 '大悟'; 下(中字)大悟(小字). (아래 그림 참조)



6) 오자(誤字)를 지우고, 그 자리에 묵서로 교정한 사례가 있다.

예) 제2장의 2면 8행 제7자: '如'(아래 그림 참조)



7) 마모(磨耗)나 사용빈도가 많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글자가 보인다.

예) 특히 '巖'자의 경우, 마지막 획인 '文'의 첫 획에 어긋난 층이 보임

① 제2장의 2면 11행 제2자 巖

② 제6장의 1면 10행 제13자: 巖

(다음 그림 참조)



8) 인쇄된 글자 중 도각(刀刻)의 흔적 또는 획의 중간이 끊어져 있는 사례가 있다.

- 예) ① 제6장의 제2면 2행 제13자 ‘見’: 제2 획의 중후반 및 마지막 획의 후미(後尾) 직전의 중간 부위는 도각의 확연한 흔적이라 볼 수 있다.
- ② 제27장 1면 3행 제7자: ‘困’ (아래 그림 참조)



이 경우, 그 부자(夫字: 목활자 또는 밀랍활자) 상태가 끊어진 상황에서 주성(鑄成)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¹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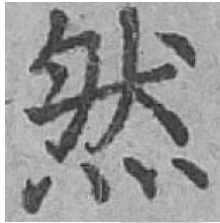
9) 진하게 찍힌 글자 중 확대경으로 반점이 보이지 않는 경우도 간혹 있다. 이 경우의 활자들은 목활자(木活字)의 보자(補字)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공동연구자 4명 중 3명이 목활자의 가능성을 지적한 진한 인쇄상태의 활자를 재조사해 보았을 때, 해당

13) 목활자의 부자일 경우 목리(木理)에 의한 획의 탈락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글자에서 반점의 흔적을 확인함으로써 그 글자가 금속활자임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직지」에 목활자 보자의 사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그 사용 사례를 지적할 경우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10) 진하게 찍힌 글자 중 반점이 선명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대체적으로 강하다. 이 경우, 3-5배 등의 확대경으로 인쇄 글자의 상태를 면밀하게 관찰한 결과, 인쇄된 획의 전반에서 반점(斑點)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예) ① 제27장 1면 8행 제5자 ‘然’: 인쇄상태 진함, 각 획의 일부에서 반점이 또렷하게 보임.
② 제19장 2면 2행 제15자 ‘竹’: 인쇄상태 진함, 좌변 획의 일부에서 반점이 보임. (아래 그림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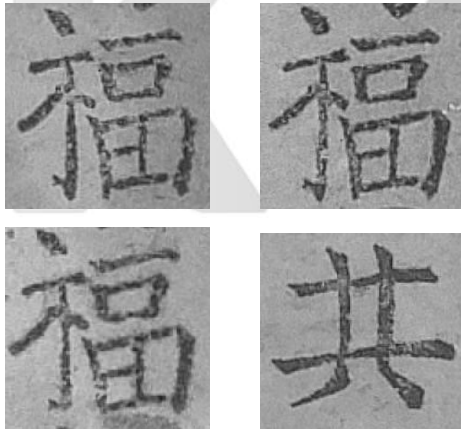
특히 위 ‘竹’자의 경우, 육안(肉眼)으로 보았을 때 반점이 잘 나타나지 않을 만큼 그 인쇄상태가 진하였다. 그러나 확대경으로 면밀하게 관찰한 결과, ‘竹’자의 좌변 획의 일부에서 반점이 보였다. 따라서 이들 많은 부분의 진한 글자들은 목활자가 아니고 금속활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아마도 이러한 현상은 조판 때에 조판면이 고르지 않은 관계로 금속 활자 돌출된 상황에서 먹을 칠하고 그 위에 종이를 덮어 인쇄시에 위에서 문지를 때 진하게 인쇄된 결과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 11) 개별 글자 획의 주변에 활자주조 때에 생긴 너덜이로 추정되는 연결된 점·선 등이 보임. 예) ① 제3장 2면 9행 제15자 ‘解’, ② 제28장 2면 3행 제15자 ‘解’의 하단부 (아래 그림 참조)



- 12) 활자의 초기 주성시 획이 완전하지 않았거나 사용중 일부 획이 마손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글자가 많이 보인다.

- 예) ① 제10장 2면 4행 제9자, 제14장 2면 3행 제2자, 17장 제1면 2행 제2자에 인쇄된 ‘福’자의 우방 하단인 ‘田’의 3 획의 후반부가 아예 인쇄되지 않은 상태로 나타난다.
② 제26장 1면 10행 ‘其’. (아래 그림 참조)



이러한 경우는 목활자 어미자(또는 아미자)의 제작 당시에 각자장(刻字匠)의 잘못된 도각(刀刻)으로 인한 해당 획의 삭탈(削奪) 상태임을 의심해 볼 수도 있는 상황이라 판단된다.

13) 소자(小字)의 보자(補字)의 대부분의 경우, 확대경을 면밀하게 관찰한 결과 글자 획의 인쇄 부분에 반점(斑點)이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금속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예이다.

예) ① 제27장 2면 1행 제12자 ‘怡(흠)’: (소자 보자) 반점이 보임; 금속활자.

② 제10장 2면 8행 제3자 ‘也’: 소자 보자, 반점 보임; 금속활자.

(아래 그림 참조).



이 사항은 상당한 관심과 흥미를 끄는 부분이었다. 왜냐하면 사전에 「직지」의 영인본만을 보았을 때에는 ‘이러한 소자의 보자들이 혹 목활자로 보완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정을 하였기 때문이다. 공동연구자 중 김성수는 현장에서 「직지」 원본의 열람을 시작하자마자 이 사항부터 주목하며 조사하였다.

14)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자쌍행(小字雙行)의 활자들 또한 각 활자(글씨)의 획 속에서 반점(斑點)을 거의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대부분이 금속활자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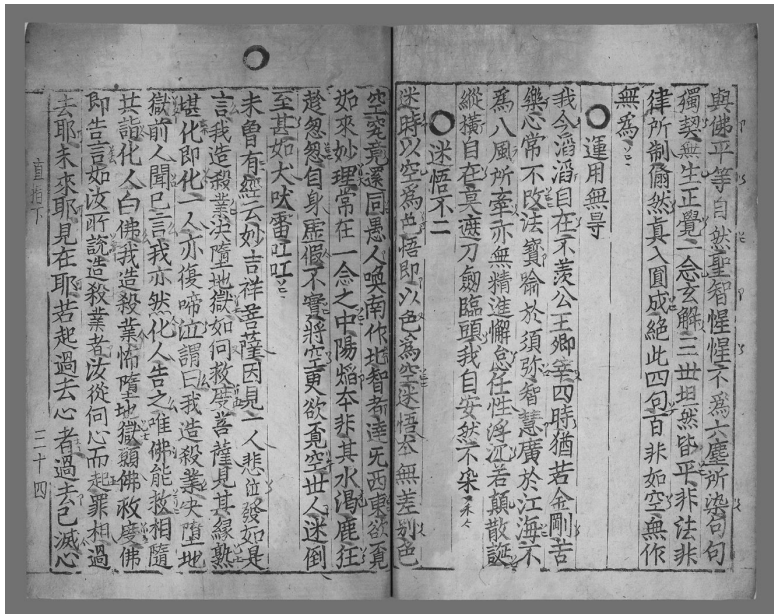


<그림 3> 제11장 1면 11행에 나타나는 소자쌍행의 활자군

4. 「직지」의 전반적인 인쇄 상태

1) 인쇄의 상태가 고르지 못하여 먹의 진하고 옅은 차이가 많다(<그림 4> 참조).

예) 제33장 2면, 제34장 1면: 墨書 加筆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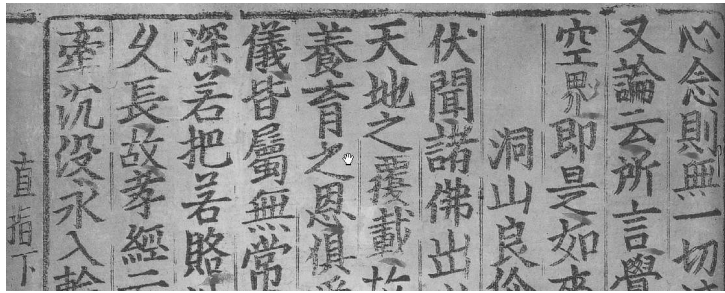


<그림 4> 「직지」의 인쇄 상태 중 인쇄의 상태가 고르지 못하여 먹의 진하고 옅은 차이가 많은 경우. 특히 墨書 加筆이 많은 경우

2) 인출시 흔들려 이중으로 찍힌 부분이 많다(<그림 5> 참조).

예) ① 제27장 1면 우하단부는 전체적으로 흔들려 획이 굵어지고 흐려져 있음, 그리고 제27장 2면의 인쇄 상태가 흐리고 하단부 墨書 加筆이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제36장 1면 상단부의 경우는 계선이 이중(二重)으로 찍힐 정도로 인출면이 흔들린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 인출시 흔들려 이중으로 찍힌 부분(제36장 1면의 상단부)

3) 인출시 활자의 가장자리라고 추정되는 부분이 먹의 흔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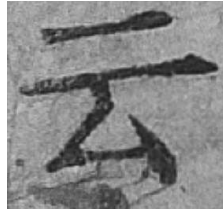
예) ① 제9장 1면 5행 제7자 ‘是’, ② 제11장 2면 5행 제2자 ‘悟’,

③ 제14장 2면 3행 제9자 ‘上’, ④ 제26장 2면 3행 제14자 ‘若’
(아래 그림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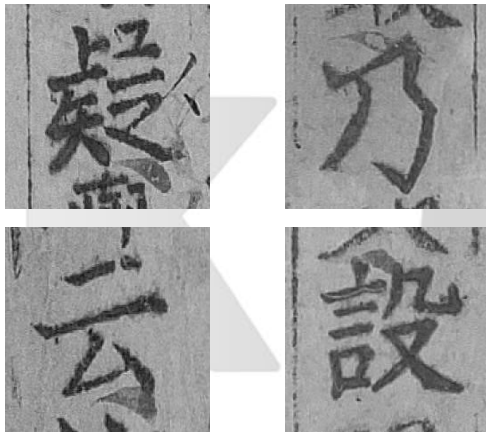
4) 획의 시작 부분이 인출시 먹의 퍼짐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다.

예) 제9장 2면 10행 제10자 ‘云’(아래 그림 참조)



5) 인출시 늘림에 의하여 획의 가장자리로 먹이 밀려난 현상

예) ① 제12장 제1면 7행 제11자 ‘疑’, ② 제12장 9행 제8자 ‘乃’,
③ 제12장 11행 제14자 ‘云’, ④ 제12장 2면 4행 제4자 ‘設’
(아래 그림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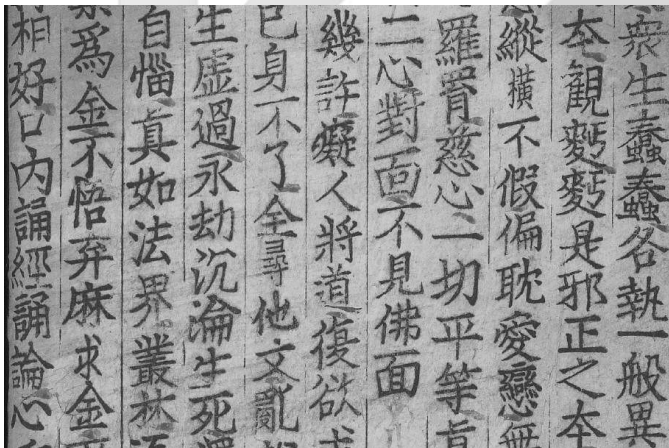
6) 인출시 종이가 구겨진 관계로 먹이 제대로 묻지 않은 현상

예) 제17장 1면 6행 제5자 '宿'(아래 그림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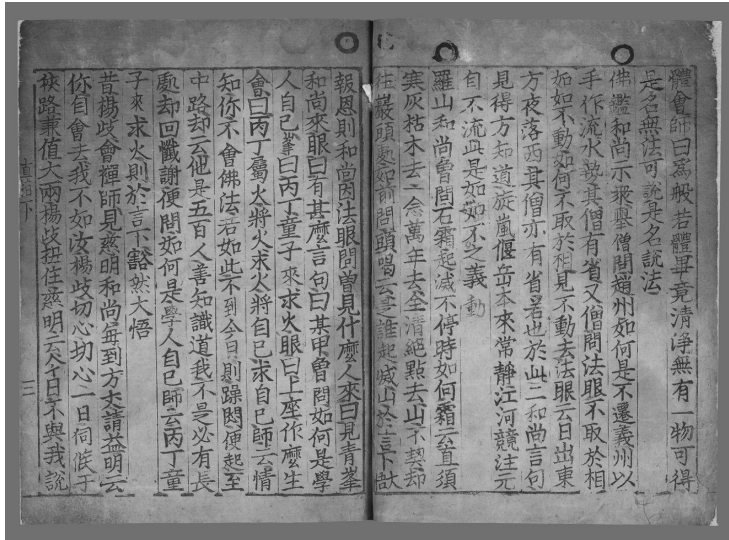
7) 인출 과정에서 종이를 조판면에 내려놓을 때 또는 내려놓인 종이 위에서 다리개로 문지르고 난 다음 조판면에서 종이를 탈착시킬 때의 미숙으로 인하여, 먹의 잔해가 바람을 타고 종이에 번진 것 같은 인쇄 결과가 나타나는 면이 몇 군데 보인다.

예) 제28장 2면의 중간 부분 (아래 그림 참조)



5. 「직지」의 조판 상태

- 1) 활자의 높이와 변란 및 계선의 높이가 서로 맞지 않은 상태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써, 상변의 인쇄상태가 원형의 흔적으로 남는 경우가 많다. 예) 제2장 2면 및 제3장 1면 (아래 그림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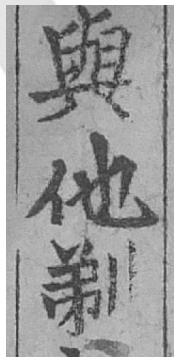


- 2) 위의 활자와 아래의 활자 상호간에 활자의 높이가 일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질러 인쇄할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써, 아래 글자의 상부의 획 또는 위의 글자 상부의 획이 제대로 인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쇄 후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추후 별도의 리스트 제시 예정)

- 예) ① 제10장 2면 7행 '主堅'의 '堅'자의 상부 획이 잘 보이지 않음.
 ② 제 12장 1행 '雪[峯]峯'의 '[峯]'자의 하단부 획이 나타나지 않음
 ③ 제21장 2면 1-2행의 전반적인 인쇄상태 참조.



- 3) 상하 글자의 위치에 의한 강제 삽입 현상
 예) 제10장 2면 10행 제6자 '他'의 '亻'의 하단부 절단



6. 결 론

이상의 본문에서 <프랑스국립도서관> 소장 「직지」 원본(原本)에 대하여 조사·분석한 내용을 요약하여 결론으로 삼으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지」 내형의 책 전체가 배접되어 있고, 책의 서구(書口)부터 오른쪽 상단의 1/4 가량 및 서뇌(書腦)부 상단 부분에 송진(松津)의 누습으로 인한 갈변 현상(褐變現狀)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직지」가 인쇄된 바탕종이의 지질(紙質)은 얇은 닥종이에 세로발끈이 보였으며, 그 폭은 2-2.5cm였다. 또한 「직지」는 후대(後代)의 배접 때, 배접후 철(綴)할 때 상하단이 절단된 현상을 보였다. 그밖에 후대의 재제본(再製本) 때, 책의 표지 서뇌부 속 상하 2곳에 흰색의 지념(紙捻)으로 묶을 당시 좌우변란과 너무 가까이 철해져 있는 상태이므로 결과적으로 책장을 넘기기 어려운 상황을 보이고 있다.

둘째, 「직지」의 전반적인 활자인쇄 상태를 조사한 결과, 대다수의 활자에서 금속활자인쇄의 가장 큰 특징인 반점(斑點)의 흔적 등 금속활자본의 특징들을 확인함으로써, 「직지」는 세계최고(世界最古)의 금속활자인쇄본임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금속활자 초기 인쇄술의 미숙한 경향인지는 몰라도, 일반적으로 활자체의 굵기가 고르지 못한 현상들이 확인되었다. 또한 진하게 인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쇄 도중 글자의 획이 분명하게 찍히지 않거나 아주 희미한 부분은 묵서(墨書)로 보충한 곳이 아주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밖에 식자(植字)가 잘못된 사례, 문장 중에 빠진 글자 부분을 주서묵서(朱書, 墨書)로 교정한 사례, 오자(誤字)를 묵서로 교정한 사례, 마모(磨耗)나 사용빈도가 많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글자가 보이는 사례, 글자 중 도각(刀刻)의 흔적 있는 사례, 진하게 찍힌 글자 중 확대경으로 반점이 보이지 않는 경우의 사례 등등의 경우를 살펴보았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진하게 찍힌 글자 중 반점이 선명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함을 확인함으로써 이 책이 금속활자본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하였다. 게다가 「직지」 본문의 소자쌍행(小字雙行)의 글자들의 경우, 확대경으로 면밀하게 관찰한 결과, 각 글자 획의 인쇄 부분에 반점(斑點)이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

하였다. 이들 소자(小字) 또한 금속활자임을 재확인하였다.

셋째, 위 둘째의 사항과 관련하여, 「직지」 원본에서 목서로 보충 또는 교정한 경우는 활자인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또한 당시 상하 활자의 높낮이가 서로 다른 조판 상황에서 인출되어 그 자형(字形)이 완전하지 못한 상태로 인쇄된 경우에도 이를 활자인쇄의 완전한 형태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그리하여 「직지」 활자의 자형(字型)을 선정(選定)할 때 극히 유의(留意)해야 할 사항으로, 이러한 불완전한 상태의 인쇄글자들은 당연히 그 대표자에서 배제(排擠)시켜야 함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직지」의 전반적인 인쇄 및 조판의 상태는, 현재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인쇄·조판의 상태가 고르지 못하여 각 활자의 인쇄에서 먹의 진하고 옅은 차이가 많았으며, 인출 때 흔들려 이중으로 찍힌 부분이 나타나는 경우 등등의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77년 당시 금속활자인쇄의 초기 미숙한 상황들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직지」의 인쇄는 경이(驚異)롭고 대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직지」 원본의 실제적인 조사에서 가장 크게 인식한 사항은, 종래 금속활자 인쇄술에 관한 서지학적 이론 및 학습·실제 등을 통한 기존의 지식을 뛰어 넘는 여러 사항들을 직접 체험하면서 고인쇄술에 관한 새로운 지식(新知識)들을 축적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는 고려시대의 금속활자 및 조선 초기 금속활자의 인쇄물들에 대한 실제적인 연구와 그 복원을 위한 실질적인 여러 문제들이 새롭게 조명되고 연구되어야 할 것임을 깊이 인식하였다.

본고는 위 공동연구자 4인이 「직지」 원본을 열람한 직후의 일치된 견해만을 채택하고, 이에 따른 각자의 정리(메모) 기록들을 수합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종합한 사항들을 본론으로 논술하였기 때문에, 「직지」 원본에 관한 충분한 열람·조사 결과를 모두 수용·기술(記述)하지 못하였다 「직지」 원본에 대한 더욱 상세한 조사내용은 차후에 제목을 달리하는 별도의 연구논문으로 다시 발표할 예정임을 여기에 밝혀 둔다.

<참고문헌>

- 原本: 白雲景閑, 「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 <프랑스 국립도서관> 所藏本.
- 南權熙, “興德寺字로 찍은 《慈悲道場懺法集解》의 覆刻本에 관한 考察.” 『文獻情報學報(全南大)』, 제4집(1990), 179-234.
- 南權熙, “興德寺字로 찍은 《慈悲道場懺法集解》의 撰者와 刊行에 관한 考察.” 『書誌學研究』 第7輯(1991, 12), 3-31.
- 동국대 역경원, 「直指」, 청주: 청주시청, 2006.
- 孫寶基, “直指心經: 金屬活字 考證의 經緯와 그 意義.” 『圖協月報』 第14卷 第3號(1973.3), 3-5.
- 오국진, “直指心體要節의 活字鑄造法 考察.” 『月刊 書畫』 1987년 3월호, 117-126.
- 천혜봉, 「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 解說書」, 청주: 청주고인쇄박물관, 2000.
- 千惠鳳, “高麗鑄字本 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 『圖協月報』 第14卷 第3號(1973.3), 6-11.
- 천혜봉, “國立中央圖書館所藏의 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 『文化財』 6(1972), 165-168.
- 천혜봉, “興德寺 鑄字印施의 直指心體要節.” 『文化財』 第19號(1986.12), 1-9.
- 천혜봉, “세계 초유의 창안인 高麗鑄字印刷” 『奎章閣』 8(1984.12), 63-75.
- 천혜봉, “흥덕사자본(興德寺字本).” 『한국금속활자본』, 서울: 범우사, 1993, 29-32.
- 청주고인쇄박물관, 「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 影印本(칼라판)」, 청주: 청주고인쇄박물관, 2000.
- 프랑스국립도서관 제공, 「직지」 슬라이드.
- 프랑스국립도서관 제공, CD판 「직지」

к с і